

## **Mark Scheme First Language Korean: Paper 1 Reading (Specimen Paper)**

### **Question 1**

The number of marks is given after each question. In addition, 5 marks will be given for the general quality of the language (see: syllabus) in the answers. Total number of marks =  $20 + 5 = 25$ .

**(a)**

화자는 자신의 아들인 동준이가 이웃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과 고를 장수 아들이 자존심도 없이 그것에 응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. (느낌으로서 ‘화/분노’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정답으로 인정함) [1]

**[Total : 1]**

**(b)**

얼굴이 검다 = 가난하다 [1]

얼굴이 희다 = 부자이다 [1]

**[Total : 2]**

**(c)**

물구나무 서는 것처럼 양팔로 몸을 지탱하고 발로 차 올리는 것 [1]

한 손으로 코를 잡고, 나머지 손으로 코끼리 코를 만들어 땅에 대고 몇 차례 도는 것 [1]

제방 아래로 던진 과자를 주워 먹는 것 [1]

**[Total : 3]**

**(d)**

다음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준비자세를 취했다. [1]

**[Total : 1]**

(e)

공통점:

같은 이름 [1]

불우한 유년시절 [1]

문학 작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쏟았다.[1]

차이점:

성이 다르다는 사실[1]외에도 램은 정신 분열증으로 자기 친모를 살해한 누이를 돌보면서 평생을  
독신으로 지내며 글과 인간이 일체된 삶을 살아간 반면 [1] 디킨스는 어린 나이에 구두약 공장에  
서 노동하면서 독학으로 성장했지만 유족한 생활을 하게 되자 구결하는 빈민가 어린이들을 지팡  
이로 쫓아 버렸다는 차이가 있다.[1]

[Total : 6]

(f)

자신의 작품과 삶이 일치했던 찰스 램 [1]

자신의 작품과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찰스 디킨스 [1]

찰스 램처럼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 [1]

찰스 디킨스처럼 가난을 멀리하며 생활을 누리고 싶다는 욕망 [1]

[Total : 4]

(g)

가난한 사람들이 자존심도 없이 구질구질하게 사는 곳에서부터 떠나고 싶었기 때문.[1]

[Total : 1]

(h)

세속적인 성공이나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는 삶 보다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어려움  
을 외면하지 않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[1] 실제로는 하루빨리 돈을 벌  
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더 좋은 물질적 혜택을 누리고 싶어한다. [1]

[Total : 2]

## Question 2

Up to 15 marks are available for the content of the answer, and up to 10 marks for the quality of writing (5 marks for Style and Organisation and 5 marks for Accuracy of Language).

- 공통점
  - 두 글의 사건들은 모두 각각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. [1]
  - 두 글의 소년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도 모르는 채 사건을 행한다. [1]
  - 두 글의 소년들이 행하는 행위는 모두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들이다. [1]
  - 두 글의 화자들은 모두 소년들의 행위로 화가 나게 된다. [1]
  - 두 글의 소년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각각의 부모들에게 체벌을 받게 된다. [1]
  - 두 글의 화자들은 모두 자신의 문제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한다. [1]
  - 두 글의 화자들은 모두 죄책감을 갖게 된다. [1]
  - 두 글의 화자들이 갖는 죄책감은 모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것이다. [1]
  - 두 글의 화자들은 모두 각각의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된다. [1]
  - 두 글의 사건들은 화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. [1]
  - 두 글 모두 화자는 일인칭 (나)이다. [1]
- 차이점
  - 화자들의 성별이 각각 다르다. (남자와 여자) [1]
  - **Text 1**의 사건은 별다른 동기 없이 저질러진 반면 **Text 2**의 사건은 오빠에 대한 공포감이라는 동기가 있다. [1]
  - **Text 1**의 사건은 화자의 삶과 죄책감을 일으키는 행위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, **Text 2**의 사건은 화자의 삶과 죄책감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. [1]
  - **Text 1**의 죄책감은 사회와 도덕에 관련된 것인 반면, **Text 2**의 죄책감은 개인적인 것이다. [1]